

# 유인물 1

다음 시나리오를 소리 내어 읽는다.

여러분의 친구들 중 한 명은 전임 선교사들에게서 복음을 배우고 있다.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한다. “지난번 토론에서 선교사들이 나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하던데 ...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것도 받아들인 건데, 내가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. 난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 이미 침례를 받았거든.”

마태복음 3장 13~17절을 사용하여 이 친구에게 어떻게 답을 할지 짝과 함께 토론한다. 토론한 내용을 나눌 준비를 한다. (또한 교리와 성약 22편을 참조하여, 회복 초기에 똑같은 걱정을 표현했던 일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답하셨는지를 알아본다.)

# 유인물 2

다음 시나리오를 소리 내어 읽는다.

여러분은 기독교인 친구 한 명과 함께 종교에 관한 대화를 하고 있다. 그 친구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. “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이 모두 하나의 존재라고 믿어. 네가 믿는 것은 다르니? 왜 그렇게 믿니?”

마태복음 3장 13~17절을 사용하여 이 친구에게 어떻게 답을 할지 토론한다. 토론한 내용을 나눌 준비를 한다. (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기사와 더불어, 요한복음 17장 20~22절을 사용할지 고려해 본다. 이 성구들에는 예수님이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[목적에 있어] 하나인 것처럼,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실 것을 간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.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가 하나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다.)

